

【연구논문】

리듬, 도주, 소진— 「필경사 바틀비」와 19세기 뉴욕 사무노동자

황은주

(서강대학교)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성과주체가 스스로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 시대의 고유한 질병인 소진증 후군은 “다 타서 꺼져버린 탈진한 영혼의 표현”(27)이라고 말한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필경사 바틀비」(“Bartleby, the Scrivener”)를 “탈진의 이야기”(64)로 읽는다. 성과주체는 규율과 강제보다는 자유와 탈규제의 원칙에 따라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주체다. 한병철은 바틀비(Bartleby)가 우리 시대의 성과주체와 달리 19세기의 규율사회에 속한 “복종적 주체”(57)이며, 따라서 과도한 자기공정에 따른 피로와 우울을 알지 못한다(58)고 한다. 그럼에도 그가 바틀비를 탈진한 노동자의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은 과중한 노동으로 완전히 소진된 사람을 상징하는 데 바틀비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막다른 벽을 마주하고선 바틀비의 창백하고 야윈 모습은 끝없이 반복되는 무의미한 노동으로 지쳐버린 한 사무노동자의 우울한 초상 그 자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필경사 바틀비」의 배경이 되는 19세기 중엽 뉴욕의 사회가 한병철의 주장처럼 온전한 규율사회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1825년 이리 운하(Erie Canal)가 개통한 이래 뉴

육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뉴욕으로 몰려든 인파 중 사무노동자는 세 번째로 큰 직업군을 차지했으며, 젊은이들은 자립이라는 이상과 자수성가의 꿈을 간직한 채 중산층의 대열에 오르기 위해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을 자발적으로 견뎌냈다.¹⁾ 「필경사 바틀비」에 나타나는 대로라면 소설 속 필경사들은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성과에 따라 서로 다른 급여를 받았다. 필사본 100단어당 4센트를 받는 급여체제에서 그들에게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또한 바틀비가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상사가 일을 시킬 때마다 “하지 않고 싶습니다(I would prefer not to)”라고 대답하는 복종적 주체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바틀비가 성과 주체가 겪는 자책과 자학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과주체가 아니라고 한병철은 주장한다(57). 하지만 바틀비의 내면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그가 성과주체가 겪는 일련의 감정들을 겪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가 겪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필경사 바틀비」는 19세기 중엽 뉴욕 어느 사무노동자에게 일어난 탈진의 서사다. 그러나 우리는 한병철이 논의하지 않은 부분, 즉 19세기와 우리 시대의 노동환경을 비교하여 단절로 설명되지 않는 연속적 측면을 밝혀야 한다. 변호사가 자신의 위선을 가리기 위해 사용한 온정주의적 화법과 바틀비의 불행과 죽음에 대해 내린 다소 모호하지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해석을 넘어서 도제 제도에서 임금노동자로 넘어가던 시기에 사무노동자들이 처한 노동과 주거환경의 변화가 빚어낸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²⁾ 「필경사 바틀비」는 오늘날의 막대한 계급차이를 가져온 자본축적이 금융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속화되고 대학교육을

1) Luskey, Introduction.

2) 당시 임금노동 시장의 확대와 도시 주거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블랙마(Elizabeth Blackmar) 1-13, 183-212 참고. 노동환경과 계급갈등 문제에 대한 멜빌(Herman Melville)의 태도에 대해서는 폴리(Barbara Foley)의 논문 참고.

받지 못한 평범한 사무노동자들의 중산층 진출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다. 다시 말하자면, 「필경사 바틀비」는 19세기 중반 미국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생활과 노동의 리듬, 도시의 리듬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더는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지만 막다른 벽에 부딪히고 만다는 피로와 소진의 서사다. 과도한 노동의 리듬, 그로 인한 소진과 도주에 관한 서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틀비의 견고한 침묵을 깰 수 없다면 그의 몸이 만드는 소리를, 그가 만드는 파격의 리듬을 들어보자는 것이 이 글의 취지다.

1. 리듬

『리듬분석』은 앙리 르페브르의 마지막 저서로 사후에 출판되었다. 르페브르가 『일상생활비판』과 『공간의 생산』에서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전유가 일상세계의 존재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면, 『리듬분석』에서는 리듬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간연구에 시간의 차원을 도입하였다. 리듬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세 개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³⁾ 첫째, 일상의 시간은 시계로 양화된 단조로운 시간이 짧은 리듬의 반복을 부과하는 선형적 과정과 우주적, 세계적, 자연적인 것에서 비롯된 순환적 과정의 대립적 통일 과정으로 측정된다. 둘째, 시간과 시간의 사용을 둘러싸고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다. 셋째, 양화된 시간은 “무엇 무엇 하기”를 위한 시간들로 분할되고 구획되며 그 사이에 위계질서를 만든다.⁴⁾ 그 중 노동을 위

3) 이하 세 개의 가설에 대해서는 르페브르 203-07 참고.

4) 르페브르는 이 측정가능한 시간의 범주 외에 명상과 놀이의 시간처럼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는 “전유된”(approprié) 시간 개념을 소개한다(208). 이 시간은 시간을 잊어버린 시간이다. 이는 “무엇 무엇하기”로 분할되지 않는, 선형적 시간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이다. 문제는 자본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을 전유하고 시간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본축적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

한 시간이 위계질서의 기준이 되며 그 때문에 다른 리듬이 교란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이렇게 자연적인 리듬이 사회·경제적인 이유들, 혹은 다른 복잡한 이유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몸의 박탈”(205) 문제가 발생한다. 르페브르는 인간도 “활동-휴식-오락”의 리듬에 따라 “동물처럼 조련되”(132)며, 서구는 그 리듬과 “조련-동일화-단순화되고 유형화된 차이”(239)의 모델을 통해 타자들을 길들이려고 시도해왔으며, 그 모델을 빠져나가는 이들 앞에 “길이 펼쳐져 있다”(139)고 말한다.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모델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조련”에 실패한 주체들로 대립적 통일과정을 거친 조화로운 리듬(eurythmie)에 균열을 내고 부정리듬(a-rythmie)을 만드는 자들이다.

「필경사 바틀비」에서 묘사된 월가의 한 법률사무소는 자본주의가 사무노동자에게 부과한 일상의 리듬을 관찰하기에 좋은 무대다. 멜빌이 묘사한 당시 노동의 일상은 반복적인 노동의 선형적 리듬과 신체의 순환적 리듬이 부딪치면서 생기는 갈등을 특징으로 한다. 터키와 니퍼즈는 일요일과 매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지루하고 반복적인 필사작업으로 보낸다. 필사 작업의 리듬은 하루 종일, 매일 지속된다는 점에서 선형적이지만 단어를 하나씩 베끼는 노동 행위 자체는 짧은 리듬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이 선형적 리듬은 각 개인의 몸이 갖는 순환적 리듬, 즉 심장박동, 장의 연동운동, 매일 조금씩 늦어지는 세포 재생의 리듬 등을 포함해서 개인의 몸이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신체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만드는 몸의 리듬이 노동의 리듬에 적응하기를 요구한다. 터키와 니퍼즈는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몸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고통의 징후들을 오전·오후 교대로 보여서 사무실에 그 자체의 리듬을 부여한다. 터키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석탄을 가득 넣은 크리스마스의 벽난로처럼 활활 타올랐고, 계속 빛을 내다가”(535) 퇴근할 무렵이 되면

지 모두 시간의 소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

점차 사그라지는데, 매일 뜨는 태양처럼 규칙적으로 이것이 반복된다. 그의 얼굴이 붉게 타오르는 오후면, 서류에 잉크 얼룩을 남기고 시끄럽게 구는 등 변호사에게 성가신 존재가 된다.

그는 의자로 빠져덕거리는 불쾌한 소음을 내기도 하고, 모래상자를 엮지 르기도 하고, 펜을 고치다가 조급하게 산산조각으로 쪼개 놓고 벌떡 화를 내면서 그 잔해를 바닥에 내던져 버리기도 했다. 벌떡 일어나 책상 위로 몸을 구부리고 서류들을 아무렇게나 상자에 집어넣기도 했는데 그처럼 나이가 지긋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안쓰러울 정도였다.(535)

터키는 아침에 멀쩡하던 의자가 오후엔 거북해서 자꾸 움직이게 되고, 주의력이 떨어져 실수가 잦아지며 그럴 때마다 짜증이 나서 바닥에 펜의 잔해를 내던지는 등 크게 해롭지 않은 한에서 돌발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그런 터키가 안쓰럽다고 말하지만 실은 터키에 대한 인간적 배려와는 거리가 먼 반응이다. 그는 터키의 효용성이 극대화되는 오전시간에만 터키가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하길 바라고 있다. 그가 던지시 오전에만 근무할 것을 권유했을 때 터키는 자신이 변호사의 “오른팔”(536)이며 오후에도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가 얼룩에 대해 책망하자 터키는 자신이 늙어가고 있으며 얼룩 한두 개 때문에 반백인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아달라고 간청한다.

사무 공간에서는 무엇보다 노동의 리듬이 우선이다. 그 공간에서 선형적인 노동의 리듬과 순환적인 신체의 리듬이 불일치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노동의 리듬과 억지로 타협한 고통 받는 몸을 책상 앞에 묶어두는 것은 바로 임금, 성과에 따른 급여다. 터키의 몸은 오후에 오전과 똑같은 노동 강도를 견딜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변호사의 권유대로 오후 일을 그만둔다면 그나마 술값과 말쑥한 옷차림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수입이 더 줄어들 것이다. 베풀어 준 단어 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한, 그에게는 그의 몸이 요구하는 고유한 리듬을 따를 여

지가 없다. 니퍼즈가 흥을 본 것처럼, 터키는 술을 사 마시느라 얼마 안 되는 급여를 다 써버리곤 한다. 그의 음주나 과체중도 필경사로서 하루종일 노동하는 그의 몸이 업무의 단조로움과 지루함에 보이는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길고 지루한 노동의 리듬에 술과 매운 맛의 생강과자로 짧고 강렬한 리듬을 보충하는 것이다. 1페니에 6-8개씩 파는 과자를 수십 개씩 우두둑우두둑 게걸스럽게 씹어 먹으면서 끊임없이 일을 하는 터키의 모습은 신체의 다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욕구불만을 드러낸다.

니퍼즈의 경우는,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야망과 소확불량의 희생자”(536)다. 그의 “야망”이라 함은 하인과 노동자에 이어 당시 뉴욕시 노동인구의 세 번째를 차지했던 사무노동자들 대부분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그는 변호사가 되거나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니퍼즈가 법률 문서의 원본 작성처럼 전문적인 업무를 넘본다든지 정치에 참여하고 치안재판소에서 약간의 업무를 보기도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필사가 다음 단계에 이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치는 단계이며 니퍼즈가 그 이상을 욕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니퍼즈의 욕망은 헛된 것이다. 법률사무소에서 오래 일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각 분야에서 사무노동자들이 맡았던 주업무가 필사였고 그들은 많은 시간을 의미없이 반복적인 작업에 보내야 했다.⁵⁾ 남아 있는 당시 사무노동

5) 당시 법률사무소에서 필경사로 근무했던 조나단 힐(Jonathan Hill)의 1841년 일기만 보아도 의미없는 노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공허함과 불행과 가난밖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울 발견할 수 있다.

또 다시 아무 소득이 없는 하루를 보냈다. ...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살아야 하나? 나를 쉴 새 없이 짓누르고 효과적으로 머리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이 우울한 악몽으로 영원히 고통 받아야 하나? ... 언제 떠나갔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너무 빨리 스쳐가고 내 젊은 날들이 나더러 서두르라고 재촉한다. 이제까지의 내 삶은 텅 비어 있다. 도대체 무엇을 내가 스물세 해를 산 결실이라고 내보일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 사방 둘러보아도 내가 마주치는 것은 불행과 가난뿐이다. (August 재인용 212-13)

자들의 일기문을 보면, 필사가 얼마나 지긋지긋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정작 성공을 위해 필요한 다른 훈련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드러나 있다. 소설 속에서 니퍼즈는 젊은 축에 들지만 19세기 중엽 뉴욕에서 근무한 사무노동자의 60-70퍼센트가 25세 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Luskey, “Introduction”), 그는 곧 자립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변호사의 추측대로 니퍼즈가 “고객”이라 부른 자가 실은 채권자고, “부동산 권리증서”라 말한 것이 청구서라면(537), 니퍼즈도 터키처럼 만년 사무노동자로 늙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가 늘 필사와 같은 소모적 노동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다가, 돈을 모으기는커녕 채권자가 쫓아다니고 종종 사무실로 청구서가 날아올 만큼 씹씹이가 크다면, 조만간 (그가 법대에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로 개업을 하거나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다른 변호사와 동업을 할 형편이 절대 못될 것이기 때문이다.

니퍼즈가 보여주듯이 19세기 중엽 사무노동자들이 부르주아 계급에 속하게 될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 이광진은 「필경사 바틀비」의 인물들이 “부르주아 계급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속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블루칼라와는 확연히 구분되었던 화이트칼라 노동자”(254)이기 때문에 이 소설을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비판으로 읽는 것에 회의적이다. 사무노동자들이 화이트칼라 노동자인 것은 분명하나 당시에 그들 모두가 부르주아 계급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⁶⁾ 뉴욕은 사무노동자들이 넘쳐났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보편화되면서 단순한 사무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쟁력이 급락했다. 대학을 나와 더 나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일부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영원히 저임금·단순노동에 만족하고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러스키는 당시 사무노동자의 평균 임금에 대해서 연 200달러부터 650달러까지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고

6) 이하 당시 사무노동자들 사이의 계급분화에 대해서는 August 1-17 참고.

살았으리라 추정한다(chapter 1). 당시 뉴욕에서 근무하는 사무노동자의 85퍼센트 이상이 미혼이었고 60퍼센트가 하숙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 소득의 대부분이 숙식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다(Luskey, “Introduction”). 어느 사무원이 『트리뷴』(*Horace Greeley's Tribune*)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그의 연소득 200달러 중 156달러가 하숙비로 쓰였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불하고 살았지만, 1년 뒤엔 64불의 빚만 남았다(Luskey, chapter 1).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니퍼즈도 쉬지 않고 노동해야 할 조건에 처해 있음은 분명하다.

니퍼즈도 노동의 선형적 리듬에 억지로 맞추느라 고통 받는 신체의 징후들을 드러내는데, 터키와는 정반대로 오전에 신경질적으로 행동하다가 오후가 되면 차분해진다. 그의 몸이 겪는 고통은 책상에 대한 그의 끝없는 불평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니퍼즈는 굉장히 솜씨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탁자를 자신에게 꼭 맞게 고치지 못했다. 나무 조각과 온갖 받침, 두꺼운 종잇조각들을 받쳐 보았고 마침내는 얼룩진 서류를 접은 조각으로 정교하게 맞춰 보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등을 편하게 하려고 탁자의 뚜껑을 턱에 가까워질 만큼 뾰족한 각도로 세우고 네덜란드 주택의 가파른 지붕을 책상으로 쓰는 것처럼 거기서 필사를 하더니, 그렇게 하면 팔에 피가 통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탁자를 허리춤까지 낮춰서 그 위에 상체를 구부리고 글을 쓰면 등이 쭈셨다. 요컨대 문제는 니퍼즈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아니,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필경사의 탁자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었다.(536-37)

어떤 방법으로도 탁자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탁자가 몸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몸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남의 글을 베껴 쓰고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팔에 피가 통하지 않거나 등이 쭈시는 것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변호사 말대로 탁자를 아예 없애는 것뿐이다. 니퍼즈의 소화불량, 이를 득득 가는 소리, 나쁜 안색, 탁자의 높

이와 팔과 등의 통증에 대한 불만은 자본주의의 선형적 리듬과 타협한 그의 몸이 사무실의 질서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소극적으로 드러내는 고통의 증상들이다.

이 상이한 저변의 리듬들을 읽어내는 것은 이들의 상사이자 소설의 화자인 변호사다.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처럼 터키와 니퍼즈를 배치하고 조율한다. 변호사가 바틀비를 고용한 것은 바틀비가 오전과 오후에 서로 번갈아가며 불편한 신체적 징후를 보이는 두 필경사(터키와 니퍼즈)를 보완할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동의 리듬을 사무실에 가져올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가 바틀비에게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한 점은 바틀비의 “차분한(sedate)”(538) 성격이었는데, 이는 터키와 니퍼즈가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불안한 균형상태에 바틀비가 안정감을 더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가 바틀비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가 늘 사무실에 있다”(543)라는 점에서 바틀비에 대한 그의 기대치를 알 수 있다. 변호사가 일을 묘사할 때 선호하는 어휘들, 예를 들어 “빨리(quick)”, “재빨리(swift)”, “꾸준한(steady)” 같은 단어들 또한 이를 증명한다. 노동의 선형적 리듬에는 “빨리”, “재빨리”와 같은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짧은 반복의 리듬이 필요하지만, 바틀비가 가져올 “꾸준한” 시간의 지속도 필요하다.

한동안 바틀비는 실 새 없이 필사를 해서 법률사무소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동의 리듬을 부여한다. 그는 마치 필사를 위해 태어난 기계처럼 묘사된다.

처음에 바틀비는 어마어마한 양의 필사를 했다. 마치 오랫동안 뭔가 필사할 것이 굶주렸던 것처럼 내 서류를 게걸스럽게 해치우는 것처럼 보였다. 소화를 시키기 위해 잠시 쉬는 일도 없었다. 그는 햇빛과 촛불에 의지해 필사를 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가 기분 좋게 근면함을 발휘했다면 나는 그의 현신이 매우 기꺼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창백하게, 기계적으로 글씨만 계속 썼다.(539)

바틀비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먹고 소화시키고 휴식을 취하는 몸의 모든 기본적 리듬을 무시한 채 쉬지도 않고 밤이나 낮이나 일만 했다. 먼 훗날 복사기가 대체할 노동을 예견이라도 하듯 조용히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는 변호사에게 무척 유용한 직원이며, 변호사는 그런 그를 “값진 획득”(valuable acquisition)이라고 평가한다(543). 특히 바틀비가 사무실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그는 바틀비의 부동성(motionlessness, stillness)을 바틀비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긴다. 변호사는 항상 제 자리에 있으며 항상 같은 속도로 글을 베껴 쓰는 바틀비를 그의 책상 가까이에 두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를 부를 수 있도록 배치한다. 그러나 터키나 니퍼즈가 고통의 증상을 번갈아가며 드러낼지언정 “임금노동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고”(Marx 99) 노동의 리듬과 타협한 것과 달리, 바틀비가 노동을 거부하면서 사무실의 리듬이 깨지기 시작한다.

2. 도주

바틀비가 사무실의 리듬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변호사가 “수동적 저항(passive resistance)”(541)이라 부르는 거절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종일 지속되는 필사와 점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터키와 니퍼즈가 교대로 보이는 피로한 신체의 징후들, 변호사의 간헐적인 호출과 검토 작업, 일하는 틈틈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균것질 등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리듬에 바틀비는 “하지 않고 싶습니다”라는 선언으로 균열을 낸다. 바틀비가 만든 네 통의 필사본을 원본과 대조하기 위해서 사무실의 모든 직원—심지어는 진저넛(Ginger Nut)까지—이 모여서 “한 번만 검토하면 네 통이 끝나”(540)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상황에서도 바틀비는 협조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결국 나머지 사람들끼리 어렵게 서류를 검토하

게 된다. 그 서류들이 바틀비의 필사본이었으므로 검토 또한 실은 바틀비의 일이며, 다른 필경사들이 그의 필사본을 함께 검토하는 것은 바틀비의 “일을 덜어주는 (labor saving)”(540) 것이다. 필사본을 함께 검토하는 작업은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로 품앗이를 한다는 전제 하에 따로 받는 보수 없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자리에 바틀비가 빠진다는 것은 극히 “상식에 어긋나는”(541) 일이다. 바틀비는 그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효율성을 전제로 돌아가는 사무실의 리듬을 방해해서 동료들에게 “불편한 이물감” (이명호 244)을 준다. 사무실의 리듬에 항상성과 지속성을 가져다주리라고 믿었던 바틀비의 부동산성은 원활한 흐름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다.

바틀비가 사무실에 들어오는 부정리듬은 바틀비가 체제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다. 이는 그가 자본의 선형적 리듬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부산물이다. 르페브르는 부정리듬을 서로 다른 리듬들이 결합하면서 만드는 조화로운 동맹의 리듬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간, 공간, 에너지의 전개과정 속에서의 분열을 전제”(196)로 하는 분쟁의 리듬, “리듬의 흐트러짐”(225)으로 정의한다. 변호사가 바틀비에게 기대했던 안정과 지속의 리듬 대신, 바틀비의 부동산성은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사무실의 리듬과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당시에 자리잡기 시작한 출퇴근 문화의 리듬을 흐트러뜨린다. 이명호는 바틀비가 취하는 “부동의 자세”(218), 그의 “무심(無心)”(243)이 “외부의 압도적인 힘으로부터 가까스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자의 위축된 감정”(243)에 가까우며 이런 “소극적이고 불투명하고 위축된 감정이야말로 자본이 거대한 리바이어던으로 군림하는 고도로 관리화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체가 경험하는 감정의 실상에 근접한다”(220)고 말한다. 바틀비의 저항의 수동성이 “우울과 혐오가 결합된 복합감정”(220)에서 비롯한다는 이명호의 주장에 굳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바틀비가 저항의 주체로서 체제에 맞서겠다는 뚜렷한 자의식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다. 바틀비에게서는 심지어 그가 도망을 치고 있다는 자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도 바틀비가 이를 마치 “선택”의 문제인 양 말하는 것이 이 소설의 가장 큰 아이러니다. 그가 도망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닌 것처럼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이미 알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가 가는 길이 그로 하여금 막다른 벽에 이르게 하리라는 것도 바틀비는 알지 못한다. 그는 무엇을 향해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속한 그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바틀비는 변호사가 요구하는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머물고 있는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변호사의 호출에 응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할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에게 처음부터 선택할 권리는 아예 없다. 그렇기에 바틀비의 “하지 않고 싶습니다”는 선언은 그 표현이 몹시 어색한 영어표현인 것 이상으로 말이 안 되는 선택이다. 이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야만 실현 가능하다. 아니,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길이 없는 곳에 발을 들이는 행위다.

나는 이런 맥락에서 바틀비의 수동적인 저항이 들뢰즈와 과타리가 말한 “도주”(fuite)이고 바틀비가 월가의 “유목인”(nomad)이라고 생각한다. 들뢰즈와 과타리가 말하는 유목인은 흔히 그 단어가 떠올리게 하는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유목인은 이미 만들어진 (파여진 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파인 흙을 가로질러 가면서 그것을 매끄럽게 만드는 존재들이고 그가 지나가는 길이 바로 “도주선”(ligne de fuite)이다. 김재인에 의하면 들뢰즈(Gilles Deleuze)와 과타리(Félix Guattari)의 이론이 한국에 처음 소개될 당시 이 개념이 “탈주,” “탈주선”으로 번역되면서 마치 주체가 체제를 전복할 의지를 가지고 혁명적인 궤적을 그리는 것처럼 잘못 소개되었다고 말한다.⁷⁾ 즉, 김

7) 도주선에 대한 이하 설명은 김재인 91-106 참조.

재인은 “도주”가 더 알맞은 번역어이며, 도주하는 이들은 어쩔 수 없어서 도망가는 것이라 말한다. 길이 없어서 길을 만들며 가야 하니 “도주선을 뚫는다”와 같은 표현이 더 적확하며, 이는 어느 주체의 의지로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틀비는 필경사로서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자본주의가 촘촘히 짜놓은 홈들을 따라 움직일 수 없었기에 그로부터 도주하려는 유목인이다. 여기서 “도주”라는 개념은 도망과 저항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바틀비가 노동을 거부하는 행위는 단순히 노동 자체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선형적 리듬을 강요하는 체제로부터 도망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리듬을 교란시키고 체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저항의 행위다. 모든 혁명적인 존재들이 그러하듯이, 유목인은 도주선을 뚫지 못하고 실패할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바틀비도 모든 퇴로를 차단당한 채 더툼즈(The Tombs)라 불리는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의 공식적 죄목은 부랑이지만 그의 진짜 죄목은 리듬의 교란이다.

사무실에서 효율적으로 노동하는 일상의 리듬을 깨는 것만으로도 큰 잘못이지만 바틀비가 의도치 않게 휘방을 놓은 또 다른 리듬이 있다. 그것은 바로 출퇴근의 리듬이다.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 개편과 도시의 부동산 개발과 임대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축적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 것은 매일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의 일상이 만드는 리듬이었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세기 중엽은 도제 제도가 거의 해체되고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구별이 분명해져서, 임금노동자들이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삶의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⁸⁾ 19세기 초반 뉴욕은 심각한 주택난을 겪는데 이는 인구가 급증한 까닭이기도 하지만, 켈리(Wyn Kelley)에 의하면 당시 부동산 개발이 자본가들의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25). 이때 부동산 투

8) 이와 같은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Blackmar 1-13, 183-212 참조.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분리, 뉴욕의 주택난과 멜빌의 작품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Kelley 187-233 참고.

자와 집세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과 집세를 감당하느라 저축이 불가능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게 된다.⁹⁾ 개발업자들이 급증하는 노동자를 위한 주거지를 개발하는 대신 중상류층을 겨냥한 건물을 주로 짓고, 이 바람에 노동자들은 기존의 건물을 여러 방으로 나누어 만든 좁은 아파트에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많았다.¹⁰⁾ 따라서 노동자들이 겪는 주택난이 심화되었고 형편없는 환경에도 상당한 금액의 집세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Blackmar 7). 화이트칼라 사무노동자의 경우도 주택난 문제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낮은 급여를 받는 사무노동자들, 특히 타향 출신이거나 이민을 온 사무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열악하였다(Luskey, chapter 5). 아무 연고도,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아이러니하게도 자본가들의 부동산 투자를 돕는 일을 주로 처리하는 사무실에서 먹고 자는 바틀비의 “엄청난 가난(his poverty is great)”(545)은 당시 부동산 정책의 모순과 자본의 탐욕을 노정한다.

자본주의의 리듬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노동의 공간과 휴식의 공간 구분에 기초하여 24시간을 주기로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면, 바틀비의 도주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그런 자본주의의 리듬을 무시하고 사무실에서 24시간 생활한다는 점이다. 변호사가 이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동정심을, 나중에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은 바틀비가 여전히 그에게 유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도제 제도하에서 고용인들을 먹이고 재우던 것에 비하면 바틀비가 사무실에 머무는 것이 그에게 거의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바틀비는 여전히 쉬지 않고 기계처럼 필사를 하는 착실한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틀비가 더는 필사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부터 노동공간에 대한 점유권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을 거부하자 바틀비에게는 더 이상 그 공간을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9) 당시 뉴욕의 임금노동자들이 부동산으로부터 소외된 현상에 대해서는 Montgomery 104-14면 참고.

10) 이와 같은 개발 전략으로 인한 노동계급의 주택난에 대해 Blackmar 183-212면 참고.

따라서 변호사는 바틀비가 “월세를 낸 것도, 세금을 낸 것도, 건물을 소유한 것도”(551) 아니면서 도대체 무슨 권리로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거냐고 따진다. 변호사는 바틀비가 자신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지도 모른다”(553)고 상상한다. 사실 변호사 자신도 건물주에게 세를 내고 (당시의 관례로 볼 때 건물주 또한 지주로부터 땅을 대여했을 것이다)¹¹⁾ 일정 기간 동안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점유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바틀비가 소유권을 주장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 것은 변호사 자신도 자신의 점유권을 소유권처럼 여기는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¹²⁾ 바틀비가 사무실을 자기 집처럼 차지하고 사는 것에 대해 변호사가 그토록 거부감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항상 무의식적으로 “내” 사무실이라고 부르던 그 공간이 실은 진정 자신의 것이 아님을 바틀비가 상기시키기 때문이 아닐까? 혹은 어쩌면 그는 부동산 관련 법무를 봐주고 있는 지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변호사는 대부호인 고(故) 존 애스터(John Astor)를 존경해 마지 않는다—자신이 마치 사무실을 소유라도 한 듯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의 리듬은 공간을 분할하여 용도를 나누고 여러 단계에 거쳐 세를 걷고, 점유할 권리를 돈으로든 노동으로든 사지 않은 사람을 가차 없이 내쫓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한다. 사무실을 점유한 바틀비는 바로 이 리듬에 위협을 가한다.¹³⁾

바틀비가 계급투쟁에 앞장선 투사가 아니라 도망하는 자며, 그가 유목인인 이유는 비록 종국적으로는 막다른 벽 앞에서 스러질지언정 길을 만들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표면상 바틀비의 도주선은 그의 내면으로 향

11) 이와 같은 관례에 대해서 Blackmar 9-10 참고.

12) 켈리는 변호사에게 사무실의 소유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와 바틀비가 같은 공간을 두고 머무를 권리를 갖기 위해 경쟁하는 관계라고 말한다(Kelley 202).

13) 이리 운하의 건설과 각종 사업에 대한 세금 혜택으로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뉴욕주는 부동산세를 만들어 세수입의 주요 원천으로 삼았고, 각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경찰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뉴욕시 소속 경찰이 생기면서 부랑자 단속 등 적극적으로 부동산사업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Montgomery 65, 84)

한 것처럼 보인다. 일을 거부하고, 움직이기를 거부하고, 동료와 대화조차 거부하며, 사무실 구석에 있는 자신의 은신처로 숨고, 급기야 먹기를 거부하는 그가 길을 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리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분명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하지 않고 싶습니다”라는 표현, 들뢰즈식으로 부르자면 “바틀비의 공식”이다. 들뢰즈는 「필경사 바틀비」에 관한 논문에서 바틀비가 사용하는 비문법적인 표현이 가져오는 언어의 탈영토화에 주목한다. 들뢰즈는 이 표현이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즉 그 표현은 선호하는 것도 선호하지 않는 것도 모두 삭제해서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으면서 결국 “아무것도 없음을 위한 의지가 아니라, 의지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되어가는”(not a will to nothingness, but the growth of a nothingness of the will) 것을 보여준다(71). 들뢰즈는 이처럼 언어의 탈영토화에 주목하여 「필경사 바틀비」를 소수 문학(minor literature)으로 읽는다.¹⁴⁾ 이 점에서 변호사가 바틀비를 내쫓아야겠다고 본격적으로 결심하는 계기가 다른 직원들이 바틀비의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사무실이라는 공간은 “선호”의 논리로 조직된 공간이 아닌데 직원이 하나둘씩 “선호한다”(prefer)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의도가 바틀비처럼 노동의 거부에 있지 않지만 변호사는 위협을 감지한다. 그 자신이 자본가는 아니지만, 자본의 축적을 돕는 대가로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며 피고용자들을 관리하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그는 그의 직원들이 행여 현재의 삶 이외에도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원하지 않는다. 그러서는 선호한다는 말이 모두를 완전히 전염시키고 그의 안전한

14) 들뢰즈, 과타리에 의하면 소수 문학은 “상수적이고 등질적인 체계”(constant and homogeneous system)로서 “권력과 지배”의 형태를 취하는 다수 언어(major language)를 소수적으로—즉 체계 안에 변수와 이질성을 도입하는 창조적인 방식으로—사용함으로써 언어를 탈영토화시키는 문학이다 (*A Thousand Plateaus* 105). 소수 문학에 대해서는 들뢰즈, 과타리의 *A Thousand Plateaus* 100-10, *Kafka: Toward a Minor Literature* 16-27 참고.

삶을 위협하기 전에 바틀비를 제거해야만 했다.

3. 소진

바틀비는 복종적 주체나 성과주체가 아니라 들뢰즈적 의미에서 유목인이며 그의 도주는 소진으로 끝맺는다. 그의 소진은 노동의 리듬이 신체의 리듬에 강요하는 타협이 노동자의 몸에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는 블루칼라 노동자에게만이 아니라 화이트칼라 노동자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틀비는 몹시 야위었고 기운이 없으며 간혹 멍하니 빈 벽을 바라보고 있다. 변호사로 하여금 바틀비가 밤낮 어두운 사무실에서 필사를 하느라 눈이 일시적으로 먼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할 만큼 그의 눈은 “흐릿하고 계슴츠레(dull and glazed)”(548)하다. 그는 분명 소진증 후군을 겪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는 터키처럼 시끄럽게 굴며 실수를 해대거나 니퍼즈처럼 불평을 해대지 않지만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을 오래 대면하기도 힘들 만큼 지쳐있다. 변호사의 질문에 그는 늘 짧막하게 답하거나 심지어는 침묵하고, 몇 마디 나누기도 전에 재빨리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가곤 한다. 그는 극도의 피로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듯 보인다. 거식 또한 소진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사무실에서 생강과자와 치즈로 연명하다가 급기야는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되는 것 또한 그의 피로감을 증명한다.

바틀비가 말없이 몸으로 드러내는 사무노동의 피로한 현실을 가리고 그의 절박한 도주를 낚은 인도주의와 추상적 언어로 포장하여 이해하기 힘든 어느 한 개인의 불운한 역사로 일축해 버리는 것은 바로 변호사다. 변호사는 자신이 바틀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여러 번 그를 도우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소설 속에서 자신이 베푼 관용과 자비의 순간을 상세히 묘사한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늘 그 자신을 향해 있

어서 바틀비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그의 피로를 이해할 수 없다. 그가 자신을 도제 제도의 온정주의적인 장인(paternalistic artisan)과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그려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용주일 뿐이다.¹⁵⁾ 그는 터키와 니퍼즈가 박봉에 시달리는 것을 알면서도 보수를 더 올려줄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 터키의 행색이 남루해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까 봐 자기가 입던 코트를 주지만 그 옷을 입은 뒤로 터키가 방자해졌다면 “귀리를 많이 주면 오히려 말에게 해가 된다”(537)고 말한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지나친 “풍요는 해가 된다”(537)면서 낮은 보수를 정당화하는 ‘사장님’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바틀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바틀비의 노동거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 그를 도울 수 없는 자신의 불능을 정당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바틀비가 사무실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뒤, 변호사는 바틀비가 “타고난 치유불가능한 (정신) 이상의 희생자(victim of innate and incurable disorder)”이며 그가 바틀비의 몸에 자선을 베풀 수는 있지만, “고통을 겪는 것이 바틀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 없다고 말한다(537). 그의 말대로라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바틀비의 “영혼”이며, 그는 그 영혼에 가 닿을 수 없다(537).

바틀비가 “타고난” 장애 때문에 그의 영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해석은 바틀비의 소진한 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다. 이는 분명 그의 사무실에 와서 밤낮으로 과중한 노동을 하다가 시작된 증세인 것을

15) 노동의 소외라는 관점에서 「필경사 바틀비」를 분석해온 맑스주의적 비평은 변호사의 이러한 이중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예를 들어 맑스(Leo Marx)에 의하면 변호사는 “실용주의적(practical)”(93)인 사람으로 바틀비의 불행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면서도 불구하고 바틀비가 “쓸모없기(useless)”(93) 때문에 그를 내쫓는 (혹은 떠나는) 것이다. 한 편 이와 정 반대로 해석하는 비평가도 있다. 예를 들어 야블린(Nick Yablon)은 변호사를 사라져가는 도제 사회의 “유물(remnant)”(118)로 파악하며 이 작품을 도시적인 모더니티를 상징하는 바틀비로부터 변호사가 소외되는 과정으로 읽는다. 그러나 변호사가 바틀비에게 제시한 모든 도움의 수단이 결국 바틀비를 자신으로부터 일단 떼어놓기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다는 점에서 그를 온정주의적 장인으로 볼 수 없다.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가 바틀비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지만 돕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다. 그가 이해할 수도, 가 닿을 수도 없는 영혼의 문제로 바틀비가 고통을 겪었어야만 그가 바틀비를 방치한 것이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소문에 근거해 바틀비가 배달불능이 된 우편물을 모아 태우는 일을 했었으며, 해고를 당했고, 그래서 변호사의 사무실에 이르렀으며 바틀비가 변호사를 위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죽음으로 질주하는 편지들의 우울함에 잠겨 있었다고 말한다. 이는 바틀비의 우울이 그 전 직장에서 시작된 일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야기가 “아, 바틀비여! 아, 인간이여!”(558)와 같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은 끊임없는 단순노동으로 소진한 바틀비의 몸의 물질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바틀비의 영혼이 타고난 장애로 고통 받고 있다는 변호사의 해석은, 일하지 않는 자는 영혼이 병든 것으로 생각하여 게으름을 죄악시하고 부랑자들을 범법자로 구속하던 당시의 가치관을 반영한다.¹⁶⁾ 게으른 자들에게 세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반발로 공적인 빈민구제사업이 중단 되면서 그 일을 사적 기관들이 맡게 되고 부동산개발업자들과 상점주인들의 요구로 경찰들이 부랑자를 단속하면서 감옥에는 부랑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Montgomery 68). 1846년 기록에 의하면 3개월 만에 뉴욕에서 4,241명의 부랑자가 감옥을 거쳐갔다(Montgomery 64). 바틀비를 내쫓을 방법을 궁리하던 변호사가 바틀비를 부랑자로 신고할 가능성을 떠올리지만 이내 포기한다. 꿈쩍도 않는 바틀비를 “방랑하는자(wanderer)”(553)라고 부를 수도 없고,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스스로를 부양하고 있으니 “스스로를 부양할 분명한 수단이 없는 자”(553)라는 부랑자의 정의에도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 바틀비가 부랑자로 불릴 수 있다면 그건 오로지 그가 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16) 일하지 않는 것을 범죄시하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경찰력을 동원한 부랑자 단속에 대해선 Montgomery 83-89 참고.

이사한 뒤에도 전 사무실과 건물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바틀비를 설득하기 위해 찾아간 변호사는 바틀비가 뭔가를 하거나 그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두 가지 방법만이 남았다고 말한다(555). 변호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권해보지만 바틀비는 다시 필경사로 일을 하는 것도, 포목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는 것도, 바텐더가 되거나,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수금을 하거나, 유럽을 가는 상류층 자제를 동반하는 일도 모두 거절한다.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저는 까다롭지 않습니다(I am not particular)”(555)라고 말하는 것과 상반되게 어떤 일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가 특히 까다롭거나 변호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정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외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반 사무노동자가 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에서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변호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바틀비가 각각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대는 이유가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한 곳에 갇혀 있는 게 싫어서(“too much confinement” 555) 포목점 점원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가만히 있고 싶기 때문에(“I like to be stationary” 555) 유럽에 가는 것도 거절하는 식이다. 여기에 대고 변호사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럼 계속 가만히 있게”(555)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바틀비가 한 곳에 갇혀서 밤낮으로 문서를 베끼는 지루한 일을 반복하는 업무로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생각할 때, 갇히는 것도 싫지만 동시에 꼼짝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만은 않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필경사 바틀비」는 19세기 중엽에 뉴욕의 사무노동자들이 겪었던 노동·주거 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당시의 생활과 노동의 리듬, 도시의 리듬에 적응하지 못한 한 사람의 도주 과정을 그린다. 바틀비의 “하지 않고 싶습니다”라는 선언은 도제 제도에서 임금노동제로의 이행, 금융과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의 가속화, 반복적인 단순 사무 노동의 선형적 리듬에 의한 “몸의 박탈,” 그리고 일과 휴식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직장에서 신체의 순환적 리듬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출퇴근 문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작품에서 바틀비가 이동해 가는 공간의 궤적은 자본주의 사회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정리듬을 가져오는 존재를 사회가 소진시키는 과정을 따른다. 바틀비는 “사무실에서 사무실 바깥으로, 사회의 바깥(교도소)으로, 그리고 마침내 삶의 바깥(죽음)으로 추방”(이명호 226)당한다.

이 궤적은 한 존재가 더 이상 자본주의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그 존재 자체를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삶의 외곽으로 밀려나고 마는 추방의 양식으로 그의 몸이 완전한 소멸을 향해 소진되는 과정을 그린다. 비록 그 마지막에 감옥의 두꺼운 벽이 막아섰고, 더는 도망할 곳이 없다 해도 바틀비는 끝까지 자본이 요구한 양자택일의 선택을 거부한다. 감옥 마당에 떨어져 사방으로 줄기를 뻗어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돌아난 잔디의 씨앗(558)처럼, 바틀비는 소실점에서 벗어나 화폭 밖으로 달아나버린 그림 밖의 풍경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다. 복사기가 필경사의 업무를 대신한 지 이미 반세기가 훨씬 넘었다. 바틀비의 이야기는 먼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는 우리로 하여금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중한 노동의 리듬에 적응하도록 조련당한 사무노동자의 피로와 소진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바틀비의 죽음을 온정주의적 탄식으로 마무리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넘어서, 멜빌이 전하는 바틀비의 도주와 소진의 의미를 물어야 하는 이유다.

Works Cited

- 김재인. 『혁명의 거리에서 들뢰즈를 읽자: 들뢰즈 철학 입문』. 홍성: 느티나무책방, 2016.
- 르페브르, 앙리.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정기현 역. 서울: 갈무리, 2013.
- 이광진.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월가의 이야기」에 나타난 바틀비의 저항 대상 연구」. 『인문논총』. 72.3 (2015): 249-84.
- 이명호. 「공감의 한계와 부정적 감정: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감정의 지도 그리기』. 이명호 외 편저. 서울: 소명출판, 2015. 213-44.
-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2.
- August, Thomas. *The Clerk's Tale: Young Men and Moral Life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Chicago: U of Chicago P, 2003.
- Blackmar, Elizabeth. *Manhattan for Rent, 1785-1850*. Ithaca: Cornell UP, 1989.
- Deleuze, Gilles. "Bartleby; or, the Formula." *Essays Clinical and Critical*. Trans. Daniel W. Smith and Michael A. Grace.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97. 68-90.
- Deleuze, Gilles, and Félix Guattari. *Kafka: Toward a Minor Literature*. Trans. Dana Polan.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6.
- _____.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Brian Massumi.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7.
- Foley, Barbara. "From Wall Street to Astor Place: Historicizing Melville's 'Bartleby'." *American Literature* 72.1 (2000): 87-116.
- Kelley, Wyn. *Melville's City: Literary and Urban Form in Nineteenth-Century New York*. New York: Cambridge UP, 1996.
- Luskey, Brian P. *On the Make: Clerks and the Quest for Capital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Kindle ed., NYU P, 2011.
- Marx, Leo. "Melville's Parable of the Walls." *Bartleby the Inscrutable: A Collection of Commentary on Herman Melville's Tale "Bartleby the Scrivener"*. Ed. M. Thomas Inge. Hamden: Archon Books, 1979. 84-106.

- Melville, Herman. "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 Street." *The Norton Introduction to Literature*. Ed. Allison Booth and Kelly J. Mays. 10th edition. New York: Norton, 2010. 534-58.
- Montgomery, David. *Citizen Worker: The Experience of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with Democracy and the Free Market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New York: Cambridge UP, 1993.
- Yablon, Nick. *Untimely Ruins: An Archeology of American Modernity, 1819-1919*. Chicago: U of Chicago P, 2010.

- 논문 투고일자: 2016. 11. 13
- 심사 완료일자: 2016. 12. 08
- 게재 확정일자: 2016. 12. 13

Abstract

**Rhythm, Flight, and Burnout:
“Bartleby, the Scrivener” and the Clerks in
Nineteenth-Century New York City**

Eunju Hwang
(Sogang University)

Utilizing Henry Lefebvre’s notion of *a-rhythmie* in *Éléments de rhythmanalyse*, this article analyzes the way Bartleby disturbs the rhythms of labor in the office through his stillness. Bartleby is a “nomad” of nineteenth-century New York in Deleuze-Guattarian sense; he creates a line of flight to escape from the endlessly boring and exhausting job that he has to endure as a copyist. His physical symptoms of fatigue and the line of flight that he creates are worth investigating because they illuminate what could happen to a clerk in the context of mass education, the shift from the apprenticeship system to the wage labor system, and of the narrow potential for upward mobility. This article in the end aims to argue that Bartleby’s flight may be considered as both escape and resistance.

Key Words

사무노동자(clerk), 소진(burnout), 리듬분석(rhythm analysis),
도주선(line of flight), 유목인 (nomad)